

NICARAGUA COLEGIO CRISTIANO

EL EDEN

에덴학교이야기

학교종이
때! 때! 때!

10
2024

간밤에 매섭게도 쏟아붓던 많은 비는 이내 아침이 오는걸 알았나 봅니다.

떨어지던 양철지붕 위의 빗소리가 저의 단잠을 깨워놓고는 아무일 없었던 듯 다시 고요함을 가져옵니다. 온 비 맞은 학교안의 꽃과 나무들은 아침 햇살이 비치자 비를 떨어내는 듯 잔잔한 아침바람에 살랑거립니다. 새아침을 맞았습니다.

조금 후에 아이들이 새벽잠 없는 새들처럼 지저귀며 서로서로 에덴동산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아이들이 오기 전 매일 지나는 통로에 빗물고인 곳이 없는지 지저분하게 낙엽들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교실이나 화장실에 비가 들이치지 않았는지 살피기를 30여분... 화초를 심기 딱! 좋은 날입니다.

소확행? 소행사?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50여년 전 배웠던 동요가 우리 에덴학교의 정문에 들어서면 누구든 무심코 생각나게 되어있습니다. 어김없이 아침 6시가 지나려면 정확한 시계처럼 학교의 작은 문으로 쏘옥 내미는 얼굴이 하나, 둘...

“부에노스 디아스 미쇼네로~”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학교안 화단에 피어난 여러 꽃들처럼 어여쁜 아침 인사들을 합니다. 행복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작은 행복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요즘에 이런걸 ‘소확행’ 이라 말하더군요.

저희 또한 매일 매일의 일상이 작은 꽃들로 행복합니다. 정말 소소하고 행복한 사역입니다.



아름다운 선교의 동역자님들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에덴동산 같은 에덴 학교의 이재경 한은양 선교사 입니다.

니카라과 에덴 크리스찬학교 및 모든 교직원들 그리고 작은 꽃들이 여러분들께 안부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까지 여름방학과 휴가를 이곳 니카라과를 방문하여 여러 가지 사역으로 섬기고 봉사하신 팀들이 돌아갈 가신 후 들떠있던 아이들의 마음이 이번 단기 팀들과의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뒤로한 채 이제, 다음을 기약하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차분히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희는 지금 철부지 아이들이 아닌 이 나라의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우리가?

지난 시간 몸바초 화산을 중심으로 펼쳤던 교회 사역과 방과후 사역을 통해 저희들을 훈련 시키신 주께서 생각지도 못한 ‘학교’라는 큰 사역을 준비하심으로 저희로 하여금 겸손히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15년 전 이곳 황량한 산디노시 한편에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 아름다운 동산 에덴 크리스찬학교를 세우시며 눈물을 주고 기도를 심으신 정연호 오경자 선교사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동역자로 불러 주셔서 현재 에덴 학교를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8-9)

한 달간의 기도시간을 가지며 주의 뜻을 묻고 또 물으며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도 주의 생각과 저희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라 저희같이 연약하고 무익한 자들을 에덴학교 사역의 한 모퉁이를 맡겨 주시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주의 일하심을 우리의 작은 머리로 생각하는게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요, 이해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순종이요 겸손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지난 6월부터 우리 에덴학교를 매일매일 구석구석을 살피고 이곳 저곳을 정탐하며 돌아봅니다. 꽃과 하늘, 나무들과 구름을, 공부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보고 운동장과 꽃길 사이를 걷습니다.

저의 기도 시간이지요, 보이지 않는 마음과 사랑을 전달하는 저의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면 좋을지,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도 나름 생각합니다.



세상을 섬길 준비된 아이들

우리 학교 정문을 들어서면 맨 처음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입니다. 학교의 자부심과 자긍심의 상징이자 하나님께서 이 학교의 주인이심을 직간접적으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배만 드리는 장소로 사용치 않습니다. 아이들의 활동영역으로도 그리고 부모들의 회의 및 다양한 모임과 강당 형식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교내 교회당은 아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알립니다. 저는 이 교회당이 너무도 좋습니다. 가만히 교회당에 들러 묵상하거나 기도하려면 길 잃은 바람이 자주 들어와 젖은 땀을 식혀주곤 어느새 조용히 돌아 나갑니다.



그곳에서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교실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어느 반이 떠드는지 어느 반이 체육 시간인지 어느 아이가 수업시간에 자주 나오는지 수돗가에서 손을 씻고 수도꼭지는 잘 잠그는지 다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학교의 비전도 묵상하면서 아이들이 꼭 그렇게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그로서 세상을 섬기는 아이들’

꼭 이렇게 성장해주면 더 바랄게 없을 듯 합니다.

우리 에덴 학교내 교회 이름은 ‘Los Disciplos’ 제자들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 지혜와 지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그것으로 세상을 섬길 준비된 제자들 이런 아이들, 이런 제자들을 키워내야 하는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는 것, 때론 너무 무겁고 버겁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와 최고치를 발휘하여 “내게 능력주신 자 안에서” 다해야 할 사명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음도 생각해봅니다.

싹수 있는 나무들?

여기,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지요.

졸업해서 대학에 입학하고 에덴에서 배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도 열공하는 우리 장학생들입니다. 진학한 각 대학에서 어렵고 힘든 생활이지만 묵묵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에덴의 꽃들입니다. 다음세대를 이끌 지도자들이 될 학생들이죠. 참, 생각하면 흐뭇한건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는게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그러나 혹시, 동역자님들이 이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예전에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닥치고 절망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누군가 나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는지를...

나를 일으켜 주었던, 나에게 손을 내밀고 힘없는 내 손을 잡아주었던 그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처럼 세상에 기쁜일이 없었다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도 지금 필요한 건 그들 옆의 그 누군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오. 또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지요.

그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하고 그들 모두는 우리의 관심과 기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양분을 먹고 우리의 사랑으로 잘 성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을 보내 주시는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을 알고 받은 감사를 또 다른 곳으로 흘려 보낼 줄 아는 싹이 있는 나무들로, 다음세대의 크리스찬 리더로 잘 성장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요술 보따리? 열정 보따리

교회 입구를 나오면 아이들이 신나게 뛰고 달리는 활동장소가 있습니다.

지난 7,8,9월 학교를 방문한 단기팀들과 각가지 추억들을 남겼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환호가 그대로 남아있는 자리이지요.

아틀란타 벨엘교회, 샬롯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 뉴욕 은혜교회 저희들이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학교에서 맞이한 팀들입니다.

동안 여기저기 산과 들로 다니며 교회와 방과후 사역했던 팀들과는 달리 학교에서 맞이한 팀들은 에덴 학교를 지속적으로 방문했던 경험들이 있으신지라 모든게 척척, 선교사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수년간 쌓아온 경험을 다 쏟아 붓는걸 보면서 많은 곳으로 선교도 중요 하지만 집중적인 타겟 선교 역시 필요함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대상이 아이들이나 만큼 기발한 프로그램들이 동원되었고 1년에 한번 경험하는지라 어떤 사역을 해도 이 아이들에게는 모든게 신기하고 모든게 재미있는 것입니다. 역시 아이들입니다.

이곳의 아이들이 사는 환경에선 이런 신나는 시간을 경험치 못하는게 현실이지요.

오로지 학교에 오면 많은 팀들이 준비한 요술 보따리 같은 프로그램에 팀들의 열정 보따리를 풀어 놓기에 이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것이지요.

단기선교는 짧은 시간내 현지에서 직접 사람과 환경과 언어와 부딪히며 그들의 눈높이와 사고에 맞출 줄 아는 지혜를 키우고 겸손을 함양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실천하고 적용하는 사역 프로그램입니다.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지요.



꽃심기 딱! 좋은 날

이번 에덴학교 선교를 위해 팀들이 흘린 많은 시간의 준비의 땀과 기도의 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의 우물을 길어 나르며 아이들에게 적셔주고 먹여주었던 그 시간속의 열정과 감격과 감사는 훗날 이 아이들의 삶에 그리고 에덴 학교와 지역사회에 선한 열매로 맺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화초같이 예쁜 아이들을 에덴 동산에 잘 심기우고 사랑으로 물주고 믿음으로 거름주어 이 땅에 예수향기 문어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키워가겠습니다.

물론 동역자 여러분들의 이들을 위한 풀뽑고 거름주는 작업도 일년에 한 두번씩 필요하지요.

저희들의 손이 닿지않고 보지 못하는 곳 그곳에 여러분들의 손이 마음이 이 동산엔 필요합니다.

마침, 학교 종이 땡땡땡 쳤는지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을 보내고 호미와 삽을 준비하러 갈 것입니다

꽃과 나무를 심듯 오늘도 이 동산의 아이들에게 저희들의 마음과 사랑을 심습니다.

꽃을 심기 딱! 좋은 날입니다.

두손을 모아 주세요.

거세게 몰아치는 태풍속의 눈이 고요하고 평온하듯 이곳 정부의 휘두르던 법인취소의 칼춤이 잠깐 숨고르기를 하는 듯 조용합니다.

현재 이곳 정치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번 여름 이후 많은 법인들의 인가가 취소 되었습니다.

그중엔 유명무실한 법인들이 대다수 이지만 NGO를 길들이기 위한 저들의 합법적 통제수단 이겠지요.

정부에 이익이 되는 통제 가능한 법인들만 남기고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약 5,300개소 정도의 법인들이 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또한 곧 10월 말 부터 아이들의 입학 전형이 있고 졸업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자리 이동이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강력한 무기 “기도” 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를 위함이지요.

여러분들의 두손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
2. 한인선교사님들의 선교 법인들이 무사하고 건재하여 주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도록 도와소서.
3. 에덴동산에 있는 교직원들에겐 더욱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4. 입학, 졸업, 교사전출 및 전입등 행정상 어떤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도와소서.
5. 정연호 오경자 선교사님들께 더욱 건강과 지혜를 저희 이재경 한은양 선교사에겐 더 은혜로운 덕과 인품을 주셔서 이 동산 문지기들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끝.